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0.7.17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영국, 극우테러집단 FKD\* 불법단체 지정 추진
  - 7.13 「프리티 파텔」 英 내무부장관은 극우테러집단 'Feuerkrieg Division(FKD)'을 불법단체로 지정하여 同 단체에 가입하거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의회에 승인 요청
  - \* 인종차별, 폭력, 대량살인 등을 옹호하는 백인우월주의 단체('18년 설립)

#### 아·태평양

- 파키스탄, 뭄바이테러 기획자 은행계좌 복구
  - 7.13 인도 언론은 파키스탄이 뭄바이 테러의 핵심 주모자이자 지난해 테러금융 사건으로 체포돼 11년형을 선고받은 라쉬카르-에-타이바(LeT)의 지도자인 「하피즈 사이드\*」와 측근 4명의 은행계좌를 복구했다고 보도
  - \* 사이드는 뭄바이테러 직후 파키스탄에서 체포돼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, 인도는 파키스탄이 LeT를 지원하고 뭄바이테러에 관여했다 의심해왔으나 파키스탄은 부인
- 인도, 테러단체를 결성한 ISIS 추종자 기소
  - 7.14 인도의 대테러기구인 국가수사국(NIA)은 인도 남부지역에서 이슬람 국가 건설 및 무장투쟁을 위해 알-힌드(Al-Hind)라는 테러 단체를 설립한 혐의로 ISIS 추종자 17명을 기소했다고 발표
  - \* 同 단체는 힌두교 지도자 및 보안요원들을 공격 대상으로 선정
- 아프간, 탈레반의 '사망간주 테러'에 대한 보복 공격 경고
  - 7.15 아프간 국가안보국(NDS)은 탈레반의 사망간주 테러(7.13)와 관련, "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탈레반에 대해 부상자와 순교자들을 위한 보복 공격을 빠른 시일 내에 개시할 것이다"라고 경고
  - \* 7.13 탈레반의 사망간주 공격으로 사망 14명·부상 63명 발생

○ 전주지법, 폭발물 테러 허위신고 고교생 실형 선고

- 7.15 전주지법은 “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”며 5차례 허위신고(3.30)를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(16)에게 징역 장기 2년·단기 1년 6월을 선고

\* 경찰·소방·군 등 70여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

## 미 주

○ 美 싱크탱크, ‘세계 테러리즘 개요: 2019년도 테러리즘’ 보고서 공개

- 7.9 美 메릴랜드大 ‘테러리즘과 테러리즘 대응연구소(START)’는 ‘세계 테러리즘 개요: ‘19년도 테러리즘(Global Terrorism Overview: Terrorism in 2019)’ 보고서를 공개, 작년 총 8,473건(20,309명 사망)의 테러 중 아프간에서 1,804건(8,249명 사망)이 발생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고 발표

\* 아프간(21%) → 예멘(9%) → 이라크(8%) → 인도(7%) → 나이지리아(6%) 順

○ 美, UN의 ‘솔레이마니 제거 위법 주장’에 반박

- 7.9 「폼페이오」 美 국무장관은 UN 특별조사관이 ‘美的 솔레이마니 제거 공습은 위법’이라는 내용의 보고서(7.7)\*를 발표한데 대해 “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한 ‘본질적 자기방어권’의 행사로 국제법에 부합한다”며 반박

\* 보복 목적의 공격을 불허하는 UN 헌장을 위반, 공습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함

## 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보코하람 대원 600여명 석방

- 7.13 나이지리아軍 대변인은 보르노주 등에 수감된 보코하람 대원 600여명이 나이지리아에 충성을 맹세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석방되었으며, 이들이 보코하람에 재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

\* 재활센터에는 현재 280명의 대원이 남아있으며, 이전까지 1,400명 석방

우간다 수도 캄팔라 연쇄 자살 폭탄테러

- '10. 7. 11 저녁 우간다 캄팔라에서 연쇄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76명 사망·80명 부상
  - 테러범들은 캄팔라 소재 럭비클럽과 에티오피아 전통식당에서 '2010년 남아공 월드컵' 결승전을 시청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탄 테러를 자행
- 테러 배후를 자처한 「알샤바브」는 “캄팔라에서 일어난 일은 시작에 불과하며, 소말리아에 파병된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의 포격으로 희생된 순교자들을 위한 보복을 지속할 것”이라고 선언
  - \* 同 사건은 우간다가 알샤바브 소탕작전을 위해 소말리아에 6,800명을 파병한 것에 대한 보복사건으로 평가(알샤바브의 최초 해외 원정 테러로 기록)
- 우간다 재판부는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「에드리스 은수부」, 「무하무드 무기샤」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5년 형을 선고

< UN 대테러실(United Nations Office of Counter-Terrorism) >

- (설 립) UN총회 결의(71/291)로 '17. 6. 15. 설립되었으며 초대 실장은 블라디미르 보론코프(Vladimir Voronkov)
- (조 직) 실장 비서실, UN대테러센터, 기획혁신부, 정책부, 정보관리·조정부, 전략기획·지원부
- (기 능) △UN총회에 대테러 정책에 대한 리더십 제공, △글로벌 대테러조정협의체(GCTCC) 참여국이 세계 대테러전략의 4대 기조를 균형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, △회원국의 대테러 역량강화 지원 △UN 대테러활동 지지, 자원배분, △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기반한 대테러정책 수행

